

제 13회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_레오 스트라우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5명
2020년 10월 4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학회 기말고사 발표수업

제7장 홉스의 정치철학의 기초에 관하여

홉스의 정치철학은 오늘날과 다른 양상을 띤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무신론적 사고관, 자연상태의 인간과 비자연상태의 차이점에서 오는 근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다는 점이다.

전근대적 사고관에서는 교리적, 종교의 영역에서의 국가를 논하였다. 기존의 모든 인간상은 종교의 영역에서 다루어진 반면 홉스의 정치철학에서는 인간위주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언어이다. 언어란 자연생성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보았다. 언어는 인간이 사유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인간의 발명품이라면 각각의 쓰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것이고 자의적인 정의가 어떻게 현실의 진정한 특성과 결부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홉스는 이를 리바이어던의 존재로 설명한다. 리바이어던이 자연권을 회수함으로써 개인가 사회 사이에서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홉스는 자연법의 전통에 따라 인간의 본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국가)에 귀속되었을 때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정치적이거나 인간적인 것)을 구분한다. 양자 모두 우주의 한 부분으로 동일한(비슷한)속성을 지닌다. 하지만 인간적인 부분은 자연을 벗어나려하는(리바이어던으로의 귀속)의 성질을 지닌다. 이 두 본질을 조화시키는 것이 언어활동이다.